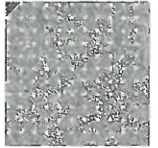


시울 주보

제2411호 2022년 9월 4일(다해)

연중 제23주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정순택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입당송 | 시편 119(118), 137, 124

주님, 당신은 의로우시고 당신 법규는 바르웁니다. 당신 종에게 자애를 베푸소서.

제1독서 | 지혜 9, 13-18

화답송 | 시편 90(89), 3-4, 5-6, 12-13, 14와 17(◎ 1)

◎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 “사람들아, 돌아가라.”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사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을 쓸어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사옵니다. 아침에 돌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

○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 ◎

제2독서 | 필레 9-10, 12-17

복음환호송 | 시편 119(118), 135

◎ 알렐루야.

○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빛나게 하시고 당신 법령을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

복음 | 루카 14, 25-33

영성체송 | 시편 42(41), 2-3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유경춘 티모테오 주교 | 서울대학교 보좌주교

예수님 제자의 3가지 조건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루카 14,26)는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십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셨는데, 가족을 미워하러니요... 그런데 ‘미워하다’라는 히브리어 말의 뜻이 ‘덜 사랑하다.’, 혹은 ‘둘째 자리에 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족 관계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가족 사랑’을 ‘하느님 사랑’보다 더 상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없다.’(루카 14,33)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가진 것을 ‘다’ 버리란 말입니까? 이 건 너무 비현실적이고 극단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얽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소유(재물, 명예, 권력, 가족 등 인간관계...)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리고 내적으로 자유롭게 되지 않으면 당신을 진심으로 따를 수 없다고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느님보다 더 우선하는 가치는 없기에, 그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않고서는 하느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의 조건으로 또 제시하신 것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당신 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루카 14,27)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몸소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당신도 그대로 모범으로 보여주신 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요구사항 즉, 자기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분을 따르며, 자기 소유를 다 버리라는 숙제는 아직 다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가족을 상대하고 사랑하는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힘겹고,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내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온갖 소유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복음의 ‘탐을 세우려는 사람의 비유’(28절-30절)와 ‘전쟁에 나서려는 임금의 비유’(31절-32절)처럼, 주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버리며 살아가야 할지를 매일같이 ‘앉아서 계산해보고 헤아려보는’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당신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시고 그 높은 곳에서 당신의 거룩한 영을 보내지 않으시면 누가 당신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지혜 9,17)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분별하고 실행할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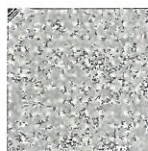
강화 난정저수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루카 14,27)

동쪽을 향해 일제히 고개 숙인 해바라기 무리가 자못 경건해 보입니다. 전통적으로 제대는 동쪽을 향해 두었다고 하지요.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의 빛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로지 태양만을 향해 선 해바라기처럼, 이런저런 핑계로 흩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 빛이신 주님을 오롯이 따라야 하겠습니다.



장은미 베르나디아 | 가톨릭사진가회



하송연 클라라 | 아나운서

모태신앙인데 왜 더 못해!

저에게 하느님은 제 세상의 전부이십니다.

모태신앙인 저에게 하느님께서는 태어나기 전부터 저의 세상이었고, 세상에 나온 후에도 제가 만난 세상의 전부이셨습니다. 집 현관을 열면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십자가와 성모상, 그 앞에서 늘 초에 불을 붙이고 기도하시던 보고 싶은 할머니, 하느님께서 주신 талан트에 감사하고 봉사하며 살라고 늘 말씀해주는 부모님 덕분이었습니다.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점으로 떠오르는 추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 매주 가던 주일미사, 미사 중에 멋진 보좌신부님을 누구보다 가까이 보려고 미사 시간보다 한 시간 먼저 가서 성전에 좋은 자리를 맡아놓고 성당 마당에서 친구들과 뛰어놀던 제 모습인데, 돌이켜보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납니다.

이런 제가 성장해 사회에 나가보니 하느님을 모르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의문을 갖지도, 부정하지도 않았고 너무 당연하게 믿어 온 하느님과 예수님에 대해 “본 적 있어?”, “왜 믿어?”라는 식의 질문을 서슴없이 할 때 저는 말문보다 숨문, 숨이 턱! 하고 막힙니다. 이내 겉으로는 의연한 척 “난 모태신앙이야.”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잘 대답했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모태신앙’이라고 하면 고개를 끄덕이고 ‘그렇다면 이해해.’라는 눈빛을 보냅니다. 어찌 보면 이때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곤란한 상황을 모면했다.’라는 생각을 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순간들이 마음 한가운데 무겁게 쌓였습니다. 더 많은 이들이 하느님을 알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저는 모태신앙이라는 한 단어로 더 이상의 대화도 교류도 없이 끝맺은 것에 대해 그럴 듯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좋으신 하느님을 나만 알고자 하려던 욕심은 아닙니다.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으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어

렵고,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흔히 당연함 속에서 소중함을 쉽게 잊어버리듯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당연하다고 해서 남에게도 당연한 것이 아니므로 제가 모태신앙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것을 의심하는 토마스에게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살다 보니 제 눈으로 보고 믿었던 사실, 제 편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들을 다 믿지는 말았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제 눈앞에 직접 나타나시지 않아도, 제 믿음에 대해 후회한 적도 배신당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과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순간은 헤아릴 수없이 많습니다.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부족한데도 당당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느님을 믿고 사랑하는 ‘모태신앙인’인 저는 행복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한컷 묵상



류상에 아녜스 수녀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함께하는 국내외 지원사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내외 가톨릭 사회복지단체를 후원합니다.

제주가톨릭사회복지회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

빌라수산나

후원 하기



“어려서부터 삶이 힘들었어요. 미래를 꿈꾸는 일도 저에게는 사치였거든요. 희망도 없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마음에 막무가내로 살았어요. 이곳에 와서 수녀님들과 함께 하는 규칙적인 생활은 저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고, 미래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게도 되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통해 세상살이도 체험해 보고, 뒷전이던 학교 공부도 다시 해보려고 수학과 영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깜깜했던 제 미래에 이제 작은 빛이 비치고 있는 것 같아요.” - 서은(가명)이 편지 -

빌라수산나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방황하며 살다가 비행을 저지르고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소녀들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소년보호 처분은 일반 형사처분과 달리 개선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어린 나이에 잘못을 저지른 아이들에게 내려지는 일종의 교화 처분입니다. 저희 빌라수산나는 그중 가장 약한 단계인 1호 처분(보호자 감호 위탁)을 받은 여자아이들이 오는 곳입니다. 이곳에 오는 아이들은 부모에게 학대받으며 자란 소녀, 부모님이 별거 중이거나, 재혼 가정에서 부모 도움 없이 자란 소녀 등 어려운 환경에서 상처받으며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을 돌볼 힘조차 없이, 그저 견뎌내야만 했던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웠던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비행 생활을 반성하고, 상처받았던 마음을 치료하며 건강한 관계 기술을 배우는 등 학습을 통해 미래를 준비합니다. 또 직업훈련도 하며 다시 세상 속에서 건강한 사

회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빌라수산나는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2021년에 시작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살레시오수녀회 수녀님들이 소녀들과 함께 열심히 생활하고 있지만 부족함이 많습니다. 특히 시설이 제주 중산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상황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한참 걸어가 오랜 시간 기다려 시외버스를 탄다 해도,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는 몇 시간이 걸리곤 합니다.

시설 자체 소유 차량이 없다 보니, 등하교가 어려운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휴학을 해야만 하기도 하고, 아르바이트, 병원 진료, 체험 활동, 학원 수강 등의 프로그램 진행도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후원자분들을 통해 이 차량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복을 입고 학교 가는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깨달은 소녀들이 즐겁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아름다운 제주에 살면서도 관광지 한 번 제대로 가보지 못했던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고향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체험해 볼 수 있는 날들을 선물해 주세요.

사랑받는 일이 어색한 소녀들이 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사랑받기에 충분한 자신의 존재적 가치를 깨닫고, 사랑받음으로써 사랑할 줄 아는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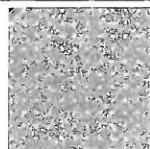
*모아주신 후원금은 제주가톨릭사회복지회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 '빌라수산나'에 전액 지원해 차량 구매를 통해 시설 청소년에게 이동지원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쓸 예정입니다.

후원 계좌 | 우리은행 1005-180-003488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2022년 9월 3일~9월 30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빌라수산나'를 위해 씁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홈페이지(<http://obos.or.kr>)-한마음한몸소식-본부소식'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소득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기부 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 입금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신청 ① 인터넷 신청: www.obos.or.kr > 후원안내 > 사랑의 손길 기부금 영수증 신청 ② 전화 신청: 02)774-3488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진정으로 '존엄한 죽음'이란?

지난 6월 15일 안규백 의원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고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말기 환자가 본인이 희망할 때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소위 '조력 존엄사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대교구는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박정우 후고 신부 |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는 최근 발의된 의사 조력 자살(안락사) 법률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인간 생명은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이든 타인에 의해서든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함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말기 환자의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줄이고, 존엄하고 품위 있는 임종을 돕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공동체의 관심과 돌봄이지 그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의사 조력 자살은 우리 사회가 경제적 효율성만을 추구하며 인간적인 관심과 돌봄의 문화를 잃어버린 결과일 뿐, 결코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는 길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 법안에는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원하지 않는 결정”을 초래하는 등의 오남용이나 부작용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말기 환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대안으로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의 지원을 확대하여 환자가 고통 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인격적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과 법률을 만들기를 촉구합니다.

'조력 존엄사'라고 미화된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이것은 '의사 조력 자살'로 교회가 살인 행위로 단죄하는 안락사에 해당합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277항) 법안이 강조

하는 인간의 '자기 결정권'은 자신의 죽음까지도 선택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닙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권능은 하느님께만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76% 이상이 의사 조력 자살에 찬성한다는 설문을 근거로 내세우지만, 응답자들이 말한 '남은 삶의 무의미함', '좋은 죽음에 대한 권리', '고통의 경감', '가족의 고통과 부담' 등의 문제는 '안락사'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인격적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의 마련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비록 큰 고통 중에 있는 말기 환자라도 자신과 가족들에게 과도한 정신적, 경제적인 부담 없이, 자연적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통증 완화치료와 정서적이고 영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마지막을 준비하게 해주는 '호스피스'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자살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은 신자들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입니다. 생의 마지막에 맞는 고통의 시간을 주님께 봉헌하며, 지난날을 성찰하고 가족 친지들과 함께 사랑과 화해와 용서의 시간을 보내며 다가오는 죽음의 시간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의미 있고 존엄한 죽음이 아닐까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김도현 바오로 신부 | 예수회, 대구 동촌본당

현재까지 물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주가 탄생하고 바로 그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중력 상수 등 물리학의 30여 가지 기본 물리 상수들의 값이 ‘대단히 좁고 놀라울 정도로 한정된’ 범위 내에 존재해야만 합니다. 만일 이러한 기본 상수들이 아주 약간이라도 현재의 값과 달랐다면, 우주가 빅뱅 이후 현재와 같이 팽창하거나, 우주 안에서 원자 및 별들이 만들어지거나, 은하계 구조가 형성되거나,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생명체가 우주 안에서 생겨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라 많은 물리학자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리학자들은 빅뱅을 통해 탄생하고 팽창하고 있는 우리의 우주가 “미세 조율되어 있다.” (fine-tuned)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30여 가지의 기본 물리 상수들이 마치 (누군가, 무언가에 의해) “미세하게/정밀하게 조율된” 것처럼 보인다는 뜻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천문학자인 마틴 리스(Martin Rees, 1942~)는 우주의 미세 조율을 (단위가 없는) 단 6가지 물리 상수들로 설명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 설명은 미세 조율에 관한 대표적인 물리학적 설명으로 현재까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주의 “미세 조율” 현상에 관해 과학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우연히 운 좋게 우리의 우주가 이러한 조건을 만족했다고 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주의 이러한 현상에 관한 궁극적인 원인·이유를 추구해온 여러 과학자들은 (이들의 대부분이 종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공통된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구에 인간을 비롯한 복잡하고 다양한 생명체가 생존하기에 최적의 환경이 갖춰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생명체는 물리학적으로 현재와 같은 기본 상수들과 법칙들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결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단순히 대폭발을 통해 만들어진 우주가 우연히 현재와 같이 생명체 생존에 걸맞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고 보기에는 30여 가지의 물리 상수들을 포함한 모든 조건이 ‘너무나 완벽해 보인다!’

생명체, 특히 인류가 우주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미세 조율된 필연적 생명체 생존 조건’을 갖추어야만 한다는 주장을 과학자들은 “인류 원리”(anthropic principle)라고 부릅니다. 인류 원리는 학자들에 따라 여러 다른 버전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적어도 현재까지는 누구도 과학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원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존 배로(John D. Barrow, 1952~)와 프랭크 티플러(Frank J. Tipler, 1947~)는 ‘천문학, 양자역학, 화학, 지구과학 등의 여러 과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가 우리 은하계 내에 생존하는 유일한⁽¹⁾ 지적 생명체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함으로써 인류 원리에 관한 논의가 학문적으로 널리 활성화되는 데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유행가 가사가 있나 봅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9월은 '순교자 성월'입니다

교회는 해마다 9월을 순교자들을 더욱 공경하고 기억하는 순교자 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9월 6일(화)~7일(수)은 '교구청 직원 피정'으로 교구청 각 기관 휴무입니다

9월 9일(금)~12일(월)은 '추석 연휴'로 교구청 각 기관 휴무입니다

9월 10일(토)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곡식을 추수하도록 돌보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돌아가신 조상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위령기도'를 바칩시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38년 9월 8일 김성학 알렉시오 신부(68세)
- 1954년 9월 7일 이완성 요한 신부(40세)
- 1958년 9월 5일 김제근 토마 신부(46세)
- 1991년 9월 5일 고비오 비오 신부(29세)
- 2002년 9월 9일 최서식 라우렌시오 신부(65세)

9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 <사형 제도 폐지>

인간의 불가침성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사형 제도의 법적 폐지가 모든 나라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천주교 용인추모공원 추석 합동 위령미사 안내

천주교 용인추모공원 추석 합동 위령미사가 묘원 내 김수환추기경 기념정당에서 봉헌됩니다.

일시	시간	일시	시간
9월 4일	10시 14시	9월 9일	11시 14시
9월 10일	11시 14시	9월 11일	11시 14시
9월 12일	11시 14시		

9월 4일 미사는 오전 10시와 오후 2시입니다.

미사예물은 관리사무소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미 착용시 경당 출입이 제한됩니다.

미사시간은 매일 오전 11시이며(월, 화 제외) 문의사항은 용인천주교관리사무소(1588-976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보 게재 신청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에서만 받습니다.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서울주보와 함께 만드는 가톨릭교리상식 코너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질문으로 꾸며집니다.

❗ 저는 이미 화살 기도 형식으로 매 순간 잘못된 것을 고백하길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고해성사를 하러 갈 때면 이미 용서 받은 것을 다시 고백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고백해야 할 사소한 것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도 듭니다.

고해성사의 다섯 단계는 성찰, 통회, 결심, 고백, 보속입니다. 만약 사소한 것을 너무 많이 고백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이 드셨다면, 성찰 단계에 더욱 많이 머물러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성찰 단계는 자신을 돌아보며 죄를 찾고, 찾은 죄의 경중을 따져보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대죄'와 '소죄'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대죄는 가톨릭교회에서 가르치는 계명 상 '중대한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저질렀을 때 발생합니다. 대죄를 발견했다면 이를 고해성사의 주제로 삼을 수 있습니다. 반면, 대죄의 기준에 못 미친다면 소죄가 됩니다. 소죄 또한 고해성사를 통



해 용서받는 것이 권고되지만, 미사의 통회 예식 등을 통해 용서를 청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소한 죄'들이 교회가 말하는 소죄가 맞는지 고민해보는 것 자체가 하느님과 함께 하는 기쁜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향심기도 소개강의

지도: 이승구 신부 / 대상: 누구나
 때: 9월7일부터 매주(수) 14시~15시30분(4주간)
 곳: 영성센터 A313호(구 계성여고)
 회비: 1만원 / 문의: 010-4565-8898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복복분당 갖기 미사)

때, 곳: 1334차 미사 9월6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주 지역별 분당 덕원자치수도원구 고산 분당, 원산 분당
 미사 후에는 한반도 평화와 북핵분당을 위한 묵
 주기도를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주교좌 명동대성당 하반기 견진성사

대상: 세례성사와 첫영성체를 받은 14세 이상
 청소년·20세 이상 신자 / 문의: 02)774-1784
 신청기간: 8월21일(일)~9월11일(일) / 구비서류
 지참 후 내방 접수(자세한 일정과 서류는 명동대성
 당 홈페이지-성당소식 참조)
 교육일정: 9월18일~10월23일 매주(일) 13시30분
 ~15시30분(6주간 / 대면수업)
 견진성사: 10월30일(일) 14시, 명동대성당 대성전

생명위원회

1) 제6회 생명수호 체험수기 공모전

주제: '생명수호, 생명사랑'(낙태, 안락사, 생명공학,
 입양, 호스피스, 의료현장 등)
 접수기간: 9월20일(화)~30일(금)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A4 2~4매)
 시상: 대상 1명(200만원), 우수상 2명(각 100만원), 장
 려상 5명 내외(각 30만원) / 자세한 내용은 생명위
 원회 홈페이지(http://www.forlife.or.kr) 참조

2) 9월 생명을 위한 월례미사

때, 곳: 9월5일(월) 11시, 명동대성당 내 파밀리아채플
 문의: 02)727-2353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순교자현양미사와 하루일정 전국 성지순례 접수안내

1) 순교자현양 신심미사

때: 매월 첫째주(화) 9월6일 · 10월4일 오전 10시
 곳: 절두산 순교성지

2) 하루일정 전국 성지순례 접수 안내

때: 9월17일(토) · 9월18일(일) · 9월27일(화)
 곳: 진산성지, 초남이 성해실(복자윤지춘, 권상연 행적지)
 신청: 9월5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ns.or.kr) 선착순 접수
 회비: 1인 4만5천원(차량, 중식 제공)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2022년 영성심리아카데미

영성심리특강, 기도동반 등(온라인)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 - 교육신청
 문의(예약): 02)727-2126(tpc@seoul.catholic.kr)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
 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
 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
 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 02)727-2139(월~금 10시~17시) / 전화상
 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서울대교구 '온라인 혼인교리' 안내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혼인교리 신청'
 통해 접수 /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9월 구역반장 월례연수

주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파리 협정'과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요소 비교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에서 동영상 강
 의로 제공 / 문의: 02)727-2069 사목국 교육지원팀

'명동, 겨울을 밝히다' 성탄마켓 참가 부스 공모

때: 12월24일(토)~25일(일) / 발표: 9월말 개별 통보
 품목: 수공예 성물, 공예품, 성탄 관련 물품 등
 9월19일까지 이메일(culture@seoul.catholic.kr) 접수
 작품 이미지와 설명, 가격대, 작가 소개 포함
 문의: 02)727-2047 문화홍보국

서울평단협 평신도 아카데미

대상: 관심 있는 모든 신자
 때: 10월17일~11월21일 매주(월) 오후 7시~9시(6주간)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회비: 10만원 / 자세한 안내 및 접수는 홈페이지
 (www.clas.or.kr) 배너 참조
 문의: 02)777-2013 서울평단협 사무국

제32회 한국가톨릭매스컴대상 공모

① 신문 · 출판, ② 영화 · TV, ③ 라디오 · 인터
 넷, ④ 교구 · 수도회 출판작
 2021년 10월16일~2022년 10월15일 발표작품
 접수마감: 10월15일까지 마감 우편 · 이메일 접수
 문의: 02)460-7626 주교회의 사회홍보위원회
 주교회의 홈페이지(www.cbck.or.kr) 참조

구역반장 하루 피정

대상: 구역장 · 반장
 때, 곳: 1차 9월23일(금) 13시~17시 · 2차 9월24일(토)
 13시~17시(1, 2차 내용 동일), 가톨릭회관 3층 강당
 회비: 1만원(9월16일까지 마감)
 본당 사무실에서 교구 양업 시스템으로 접수
 문의: 727-2069 사목국 교육지원팀

제43회 가톨릭 에코포럼

주제: '식량 산업인가 생명인가'
 대상: 일반신자, 수도자, 성직자 누구나
 때, 곳: 9월13일(화) 19시~2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발표: 정영기 교육국장(농민,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토론: 이동훈 신부(가톨릭농민회 원주교구연합회 지도
 신부), 이동현 박사(가톨릭농민회 광주교구연합회 곡
 성분회) / 문의: 02)727-2283, 2278 환경사목위원회

2023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신입생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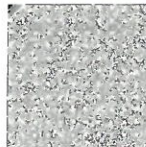
사제지망 일반예신 학생 및 체계적인 신학 공부
 를 희망하는 수도자, 남녀 평신도를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고교졸업(예정)자, 대학수료자, 수도자, 만
 학도(1988년 2월29일 이전 출생) / 문의: 02)740-9704, 9705
 원서접수: 9월13일(화)~17일(토) 인터넷 접수
 면접평가: 11월4일(금)
 홈페이지(https://songsin.catholic.ac.kr) 참조

가톨릭 영유아(만 5세 미만) 부모교육

주제: 우리 아이와 기도 어떻게 할까요?
 강사: 박종수 신부(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유아부 지도신부)
 때, 곳: 9월14일(수) 오전 10시~12시30분, 온
 라인비대면교육(ZOOM) / 8월29일(월) 10시~9
 월6일(화) 16시까지 유아부 홈페이지(www.
 catholicinfant.or.kr) 접수
 문의: 02)727-2115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유아부

갤러리1898 휴관안내

추석연휴 갤러리 휴관: 9월6일
 (화)~13일(화) / 문의: 02)727-2336



홍보위원회 음악피정

홍보위원회 음악 피정 '잊혀진 나'
 내용: 바쁜 일상 속에 뒷전으로 미뤄졌던 '나'를
 찾아봅니다. 성가, 가요, 클래식 등 다양한 음악
 연주와 나눔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드리
 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 회비 없음
 대상: 신자 및 일반인(선착순 30명)
 때, 곳: 9월25일(일) 14시~16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진행: 피아니스트 에드윈 김, 허영엽 신부
 신청: 네이버카페 '가톨릭예술아카데미'(https://
 cafe.naver.com/catholicartstory) / 문의: 02)751-4100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문의: 02)921-5094, 010-3732-5093

9월5일(월)	오전 10시30분	가톨릭회관 3층(명동)
9월19일(월)		동서울광장동성당
9월26일(월)		서서울양천성당

인준단체 알림

모임

지리산 피아골 피정 / 문의: 010-3712-8119

때: 9월29일~10월1일, 11월11일~12일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내용: 성경적(신앙선조의 성경) 해설강의, 묵상, 미사
 지도: 정 바오로 신부(수원교회사연구소장)
 성가기도: 고영민(찬양선교사) / 성경강해 피정비: 1만원
 때, 곳: 9월17일(토) 14시~18시, 구산성지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사무실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자연치유력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때, 곳: 9월23일(금)~26일(월) · 10월7일(금)~10일
 (월) · 10월21일(금)~24일(월), 도미니코 수도회
 문의: 010-9363-7784 싱글라라

삼성산 피정의 집 성령기도회 및 치유 대피정

곳: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문의: 02)874-
 6346 삼성산성령수녀회 · 사랑의성령봉사회

화요 성령기도회	매주(화) 18시30분~22시
치유 대피정	9월17일(토) 12시30분~17시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
 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자연순례	9월20일~22일, 10월1일~3일, 10월7일~ 9일, 10월18일~20일, 10월24일~26일
성지순례(추자도성지 포함)	11월5일~8일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예수마음선교수녀회)

곳: 예수마음 피정의 집(문산)

문의(접수): 010-4906-5722, 031)953-6932

1박2일	10월15일(토)~16일(일), 11월5일(토)~6일(일)
3박4일	9월30일(금)~10월3일(월), 11월10일(목)~13일(일)
8박9일	9월19일(월)~27일(화), 10월25일(화)~11월2일(수)
40일	9월14일(수)~10월23일(일)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섬과 재충전의 순례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반장
때: 9월15일~17일·9월19일~21일·10월20일~22일·11월1일~3일·11월15일~17일·11월21일~23일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이웃

음식심리상담사자격 초급반

때, 곳: 9월20일~10월4일(화) 13시30분~16시30분,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 회비: 15만원
문의: 010-4252-1165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오르프'와 함께하는 쉼, 움직임 / 문의: 02)924-3048

대상: 39세 이하 청년(10명 이내) / 카톡ID: k_orff
때, 곳: 9월6일~27일 매주(화) 19시30분~21시, 성골롬반외방선교회(주최,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한국외방선교회 성서인문학 강좌·후원회 미사

대상: 성서인문학 강좌에 관심 있는 분
때, 곳: 9월7일(수) 15시~16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강사: 김병수 신부(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14시, 소성당 / 문의: 02)3673-2528

서강대 게임·평생교육원 이태리어·스페인어 강좌

2022년 9월~10월 가을학기(1) 수강생 모집
개강: 이태리어 9월6일·스페인어 9월7일(8주 과정, 총 30시간) / 원어민을 포함한 우수 강사진, 입문~고급반 단계별 맞춤형 교육
여행이나 순례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 환영
수도자는 수강료 10% 할인됩니다
문의: 02)705-8718(http://scec.sogang.ac.kr)

2022년 성 프란치스코 대축일 기념 특강

때: 매주(수) 10시~11시50분(강의)·12시10분(미사) 3회
곳: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1층 성당
회비: 3회 1만원 / 문의(접수): 02)6364-2204, 010-3781-2204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9월14일	동행, 십자가 이야기	이창우 교수
9월21일	나의 집을 다시 지어라, 건축자 성 프란치스코	김광현 명예교수
9월28일	프란치스코의 향기	이종한 신부

예수회센터 동영상 사전 녹화 강좌(9월 개강)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어떻게 실제로 기도하고 성찰할 것인가?	매주(월)	권오면 신부
신약성경과 영성생활-하느님 나라의 외곽	매주(월)	임숙희 박사
가톨릭 신앙과 영성 다시보기 12선	매주(화)	예수회사제의
성경대학-요한복음 1, 2, 3	매주(수)	송봉모 신부
이미지를 통한 신비탐구	매주(수)	홍기영 교수
가톨릭 사회교리	매주(목)	전주희 수사
나는 믿나이다? 우리는 믿나이다?	매주(금)	이규성 신부
꿈을 통한 영적 치유	매주(금)	홍기영 교수

인천교구 지혜의샘(북방선교 기도공동체) 교육

일부(월·수) 쉬엄 맥성경(7월4일부터 시작): 1년 동안 신구약 성경의 맥을 쉽고 재미있게 살펴보는 무료 교육 과정입니다 / 문의: 010-5454-1871, 010-3248-9705
곳: 지혜의샘(부천시 송내동 366-5)

(월)	오전 구역 1강의, 오후 구역 2강의
(수)	오전 신약 1강의, 오후 신약 2강의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영성특강

때: 매주(금) 15시40분~16시40분 / 주제: 참 신앙인의 길
회비: 회차당 1만원(후원회원 7천원) / 선착순 140명
문의(접수): 02)3147-2402 성지 사무실

9월23일~10월14일	신앙인이 된다는 것	이영제 신부
10월21일~28일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두 가지 계명	최정훈 신부
11월4일~11일	아무것도 나를	조동원 신부
11월18일~12월9일	바로로 사도가 전해주는 위로와 권고	김상우 신부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목요신학강좌 트랙 II(한국CLC)

때: 10월20일~11월24일 매주(목) 19시30분(6주)
회비: 8만원(대면·녹화강의) / 문의(접수): 02)333-9898

10월20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정희완 신부
10월27일	역사적 예수는 누구인가	김진호 목사
11월3일	삼위일체를 이루시는 예수	이규성 신부
11월10일	코란 속에 나타난 예수	송해경 박사
11월17일	하느님과 제자가 되기 위한 식별의 여정	정찬민 신부
11월24일	예수의 팬(fan)에서 예수의 벗으로	현재우 박사

모집

개포동성당 첼로 오케스트라 전공자 모집

때: (월) 20시 /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오보에, 성악, 편곡
접수: cafe.daum.net/caelumorch / 010-2239-9463

제9회 가톨릭영화제 현장 자원활동가 모집

모집기간: 10월13일까지 / 홈페이지(caff.kr) 참조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명동대성당 가톨릭여성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20대~40대 후반 여성 교우(본당 제한 없음)
오디션: 9월25일(일) 13시 / 문의(문자): 010-8788-4781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1963년 3월 이후 출생자로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완료한 심신이 건강한 분
모집기간: 9월23일(금)까지 / 문의(접수): 02)2258-5781, 2

미사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 문의: 02)776-0457

군중신부 특강 및 군 복무중인 청년과 회원을 위한 미사
때, 곳: 9월5일(월) 14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인문

도미니코 수녀원 영성센터 / 문의: 010-5604-1882

전문심리치료: 영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부부 및 가족 치료, 개인(우울·공황·분노·강박) 종합심리검사

혜화동성당 혼배미사 / 문의: 02)764-0221

혼인미사시간 매주(토) 11시·14시 / 혼인미사를 위한 대성전, 연회장, 신부대기실, 폐백실, 주차장 완비
곳: 전철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 도보 3분

전·진·상 영성센터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jjscen.or.kr
나답게 살기 위한 필요한 자기인식 작업-수지에너 프로그램: 매월 셋째주(금·토) 오전 10시~오후 4시

제22회 cpbc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때, 곳: 9월16일(금) 20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단장: 조승현 신부 / 지휘: 이지영
티켓: 1만원(전석 지정석) / 문의: 010-2650-8014
19시 저녁미사 후 전체 퇴장하고 입장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수시 모집 / 관련기관: 과기부 산하 한국뇌은행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여성의 전화상담

여성전화상담 (월~금) 10시~16시 / 문의: 02)990-9366
대면 상담: 심리, 대인갈등 / 문의: 02)990-9360

직원모집

예수성심전교수도회 직원 모집

분야: 후원회 사무직 1명(터존 Smart A 및 Excell 사용가능자 우대, 자가운전 가능자)
곳: (임시) 경기 파주시 광탄면 삼궁로 166
문의(접수): 010-6311-8071(giloversc@daum.net)

천주교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직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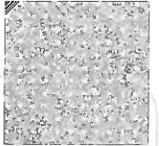
업무: 후원회원 관리 및 회계(경력 무관, 회계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9월23일까지 이메일(johngod.kr@naver.com) 접수

가재울성당 방호원(계약직 1명) 모집

대상: 세례받은 교우 / 문의: 02)308-8871
업무: 시설물관리, 미화, 기타 방호업무 등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개별 연락) / 방문·우편(우 03711, 서울시 서대문구 모래내로15길 25 가재울성당) 접수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3012-2616 조성하 신부
성심수녀회	9월17일(토) 14시~17시	용산구 원효로19길 49	010-9284-0304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수시	신학원(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투스 평교 베네딕도 서울 수녀원	10월2일(일) 14시	본원(돈암동)	010-8191-0377(www.benedict.or.kr)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마리아의 신비를 풀다

브랜트 피트리 지음
바오로딸 | 308쪽 | 1만6천원
문의: 02)944-0944

이 책은 저자가 성모님을 새롭게 만나는 과정을 담았다. 성모 마리아에 대한 가톨릭교리가 성경과 초기 교회의 믿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성경적 근거로 밝히는 학술적인 내용이지만, 자신의 경험을 곁들여 대중 강연을 하듯 쉽게 설명하기에 공감하며 재밌게 읽을 수 있다.



신간

JPIC, 예언자의 세상 읽기

조현철 지음
생활성서 | 224쪽 | 1만4천원
문의: 02)945-5987

이 책은 JPIC의 핵심 사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JPIC의 교과서'와도 같다. 이 책은 'JPIC'라는 개념을 확실히 하고, 예언자가 세상을 바라보듯 우리도 오늘날 세상 현실을 구체적으로 바라보게 하며, 더욱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와 그 근거를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에서 찾아 제시한다.



신간

치빌타 카톨릭 한국어판 제15권

페데리코 롬바르디 지음
이나시오 영성연구소 | 179쪽 | 1만원
문의: 02)3276-7799

예수회는 성 이나시오의 회심 500주년을 맞아 2021년~2022년 7월 31일의 기간을 '이나시오의 해'로 설정하여 예수회원 자신의 회심을 도모하면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보고자 했다. 이나시오 영성 관련 기사들과 함께 수도 생활의 전환기에 처한 우리에게 성찰을 촉구하는 회심 관련 기사들을 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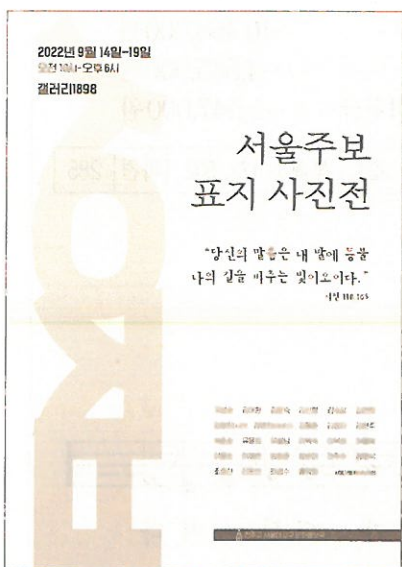


신간

오늘은 두부 내일은 당근 수프

고이데 미키 지음
바오로딸 | 184쪽 | 1만2천원
문의: 02)944-0944

저자가 말기암을 앓는 엄마와 함께 호스피스 병동에서 보낸 마지막 2주간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다. 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이와 그 곁에 머무는 가족, 호스피스 종사자의 아름다운 관계가 편안한 웃음과 따뜻한 위로의 선물을 건넨다. 또한 죽음을 따뜻하고 밝은 긍정의 시선으로 마주하게 한다.



서울주보 표지 사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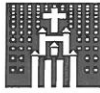
"당신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 나의 길을 비추는 빛이오이다." (시편 118,105)

2022년 9월 14일(수)-19일(월), 갤러리1898 (관람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서울주보 표지 사진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화홍보국은 지난 3년간 주보 1면을 장식했던 사진들을 한데 모아 '서울주보 표지 사진전'을 마련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한컷 사진에 담고자 애썼던 가톨릭사진가회 회원들과 함께 준비한 이번 사진전을 통해, 복음을 표현하고 전하기 위한 열정과 수고를 다시금 되새기고 나누길 희망합니다.

제2244(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연회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서대문구 연회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연령회장 : 지병국(바오로) 010-5512-4450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다),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 아 세 례	홀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평일 미사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축복식·어린이 축복식
일시 : 9월 4일(주일) 오전 11시 미사

◎ 유아세례 : 9월 4일(주일) 오후 4시 30분

◎ 한가위 합동위령미사

9월 9일(금)	오전 6시 (평일미사) 오전 10시 미사 없습니다.
9월 10일(토) 한가위	오전 6시 (합동위령미사) 오전 9시 (합동위령미사) 오전 11시 (합동위령미사)
9월 11일(주일)	오전 7시 (주일미사) 오전 9시 (주일미사) 오전 11시 (주일미사) 오후 2시 (주일학교통합미사) 오후 6시 (주일미사)
9월 12일(월)	미사 없습니다.

※ 한가위합동위령미사신청은 9월 4일(주일) **오늘까지**
사무실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 오전 6시미사 (미사후에 연도 바칩니다.)
오전 9시/11시미사 (미사전에 연도 바칩니다.)

※ 9월 9일(금)은 사무실 휴무입니다.

◎ 주일학교 개학미사

초등부 : 9월 17일(토) 15시

중고등부·반다 : 9월 18일(주일) 10시 30분

◎ 청년20예그리나전례단·30프리모전례단 모집

주님의 잔치에 함께 할 청년전례단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청년20예그리나전례단장 (010-6339-6324)

청년30프리모전례단장 (010-2550-2375)

◎ 바오로 시니어대학 개강 안내

개강일시 : 10월 7일(금) 10시미사 후

수강신청 : 수강을 원하신 분은 성당사무실에
직접 신청

담당자 : 한성근 바오로 (010-7508-7031)

차광옥 알렉산더 (010-6314-2198)

◎ 오늘은 성당유지보수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2. 8. 28)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1년 책정율	2021년 납부율
2,094	845 (40.4%)	804 (38.4%)	43.8%	42.5%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당유지보수기금 (2022년)

익 명오십만원 김예린일백만원

누 계65,970,300원

◎ 연령회 감사헌금

고 노상남 요한보스코 상가이십만원

◎ 감사헌금 (8월 22일~28일)

익 명오만원 익 명사십만원

권수희오만원 김정미이십만원

함영동일만원 신옥분삼만원

황재묵일십만원 이형재일십만원

익 명일십만원 고 구병례 상가 ...일백만원

◎ 우리들의 정성(연중 제22주일)

교무금10,468,000원

주일헌금4,545,900원

성당유지보수를 위한 2차헌금1,547,000원

입당	48	봉헌	210, 220	성체	175, 502	파견	286
----	----	----	----------	----	----------	----	-----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